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com

Issue Comment

- ✓ 역사적으로 LNG 보다 PNG 가 가스 유통의 메인 형태였음
- ✓ LNG 탱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발주로 공급 과잉임
- ✓ 용선료가 오르기 힘든 국면인 바 추가 발주 어려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LNG 탱커의 추가적인 발주는 어렵다

급증하는 LNG 수요로 인해 20년간 LNG 교역량이 성장할 것이라는 BP의 예상이 제시되면서 LNG 탱커 추가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다는 연합뉴스의 보도가 있었다. 특히 BP는 PNG 물동량 대비 LNG 물동량의 성장이 7배나 빠르다며 LNG 시장의 성장을 전망했다. 그러나 SK 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 7월 3일 “남쪽 나라 LNG의 위기, 그리고 조선 이야기: Global New Energy Roadmap Episode II” 자료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전 세계 PNG 수입량이 LNG 수입량 대비 평균 2.45배 이상 많았음을 지적하며 원래 가스의 유통은 PNG 형태가 메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최근의 LNG 물동량 증가세는 미국산 LNG 출회로 인한 일시적인 급증일 뿐 PNG가 대세인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추가적인 LNG 탱커의 발주를 기대하기에는 현재 LNG 탱커의 공급 과잉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용선료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발주는 어렵다. 2017년 초에도 LNG 탱커 발주 기대감이 있었지만 2017년 10월 중순 현재까지 LNG 탱커의 발주량이 기대에 대단히 못미쳤다는 점은 이러한 판단을 지지한다.

LNG 탱커 발주 기대감

LNG선 발주 2년 뒤 붓물... '보트고개' 조선업, 특수 기대
기사입력 2017/10/15 06:31 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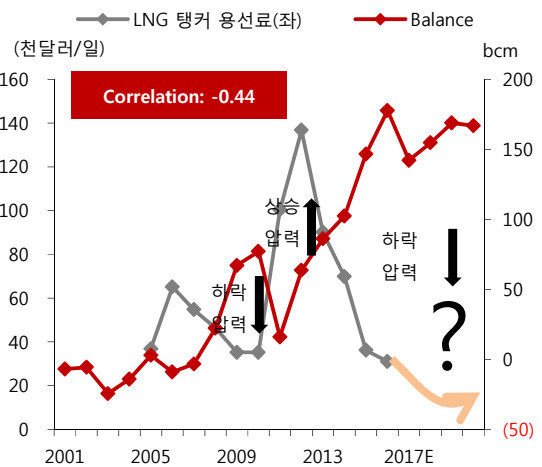
친환경 LNG 수요 해상수송 늘어...조선 빅3, 기술력 우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확대 추세로 LNG(액화천연가스) 수요와 교역량이 최소 20여년간 성장한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LNG 선박 및 설비 건조와 관련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조선 대형 3사가 현재의 일감 공백을 견뎌내면 2년 뒤 특수주를 누릴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석유회사 BP는 최근 발표한 '에너지 아웃룩 2017'(Energy Outlook 2017) 보고서에서 전 세계 LNG 해상 교역량이 빠르게 늘어 약 20년 뒤에는 전체 LNG 물량의 절반이 해상으로 수송된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LNG 탱커의 공급과잉 심화는 용선료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자료 : 연합뉴스, SK 증권

자료 : BP, Searates, Clarksons Research,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